교도소 인근 지역주민의 지각된 위험과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the Perceived Risk and Benefit on the Acceptance of Prison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Prison -

이 홍 재 (안양대학교 공공행정학과 부교수)

Abstract

Hong-Jae Lee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erceived risk and benefit on the acceptance of prison. Trust in prison was operationalized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perceived risk and benefit and the acceptance of prison. A survey was conducted via an offline panel with 450 residents near the prison. As proposed by the hypothesis, the results showed that perceived risk had nega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prison, and perceived benefit had positive effect on the acceptance of prison. However, trust in prison didn't moderate the impact of perceived risk and benefit on the acceptance of prison.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o improve the acceptance of prison.

주 제 어: 수용성, 지각된 위험, 지각된 편익, 신뢰, 교도소

Keywords: acceptance, perceived risk, perceived benefit, trust, prison

I. 서 론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피하고 싶은 시설이 있다. 비선호시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정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이른바 님비(NIMBY)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대와 갈등은 최근의 문제만은 아니다. 교도소 시설도 예외는 아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 이 논문은 한국지방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볼 때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은 필수 국가시설이다. 교도소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특성상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비선호시설로 분류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에는 총 53개의 교정시설이 설치·운영중이다. 이중 39개가 교도소 시설이다. 교정시설 수형자는 지난 2013년 32,137명에서 2017년 36,167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교도소 수형인원 과밀화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한 교도소 신축·이전 논의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의 대립과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향후 교도소 수형인원 과밀화와 시설 노후화에 따른 교도소 시설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도소 신축·이전 과정에서 수용여부에 관한 갈등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수용은 다양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자체나 지역사회, 지역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교도소 신축·이전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교도소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도 있다. 그렇다면 교도소 신축·이전에 대해 지역사회의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교도소 신축·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그렇지 않은 주민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와 관련해 본 연구는 교도소 수용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된 인식 요인에 주목한다. 교도소 수용 주체는 해당 지역주민이며, 이들이 지각하는 인식은 교도소 수용에 관한 태도 및 행위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 대해 주민들이 지각하는 위험과 편익은 어느 정도인지, 교도소에 대한 신뢰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등은 교도소 수용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비선호시설 수용성에 관한 논의는 위험 또는 갈등관리 분야에서 상당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원자력 발전소나 방사능폐기물처리장 등에 국한되어 있으며, 교도소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 수용에 관한 논의는 교도소 입지과정에서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적 연구는 미흡하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교정직원의 직무만족도나 이직 또는 교도소 운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최근 들어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 수용 또는 지역사회 상생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문헌연구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규범적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교도소 수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데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교도소 수용성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 기관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다. 교도소에 대해 지각한 위험과 편익 인식이 수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교도소에 대한 위험과 편익, 수용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가지는지 등은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교도소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 관리를 위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교도소에 대한 위험인식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을 포함하여 쓰레기 소각장이나 화장장, 장례식장, 송전탑, 그리고 교도소 등은 비선호시설 또는 혐오시설로 간주된다(김흥식, 1993: 9; 유병철, 2016: 83). 비선호시설(LULU: Locally Unwanted Land Uses)은 국가적, 사회적, 지역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시설의 특성상 해당 입지지역 차원에서 인간적인 생활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의미한다(김지수·심준섭·윤태섭, 2016: 52).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지역에 집중되는 반면 혜택은 전체 사회에 거의 균등하게 배분된다(최승호·이필도, 2015: 2). 이러한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성(imbalance of costs-benefits)은 해당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경제적·사회적 불이익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도소는 징역, 금고, 구류 등 자유형에 처한 자를 격리·구금·교정 교화하는 시설로 구치소, 보호감호소 등과 함께 교정시설에 포함되는 국가시설이다(송영삼, 2016: 107).[1] 교도소 입지정책은 교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적 시설의 설치라는 점에서 분배정책의 성격을 가진다. 다른 비선호시설과 유사하게 교도소 입지정책의 경우에도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은 발생한다. 교도소는 사고발생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사회통념상 위험한 시설로 인식되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김지수 외, 2016: 54).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시설의 신축·이전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정책지연 또는 정책중단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교도소 입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지역주민들에게 위험으로 지각된다. 여기에서 위험이란 "부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건에 처할 확률"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확률"이라고 할 수 있다(Wildavsky, 1988: 3).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등 과학기술의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과는 달리 교도소의 경우 범죄자 등 사회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위험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교도소가 신축 또는 이전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은 교도소 입지로 인해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지역이미지 손상, 자녀교육에의 부정적 영향은 물론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탈옥에 따른 위험을 지각하게 된다. 지각된 위험은 일종의 위험인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위험인식(risk perception)은 사회적·문화적 구성개념으로 "특정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확률측정 및 그 위험으로부터 야기되는 결과에 대한 관심 정도"를 의미한다(차용진, 2007: 99).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개인의 주관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은 심리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된다. 지각된 위험만

1) 2017년 기준 교도소는 전국적으로 39개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그 유형은 성년교도소(33개소), 소년교도소(1개소), 개방교도소(1개소), 여자교도소(1개소), 직업훈련교도소(1개소), 민영교도소(1개소) 등으로 분류된다.

큼의 편익이 보상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반대행위를 구체화하게 된다. 예를 들어 안양교도소의 경우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2000년부터 신축·이전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신축·이전 후보지인 화성시와 광명시의 반대로 현재 위치에 교도소 재건축을 추진하였지만 안양시의 건축협의(허가) 불가통보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건축협의가 보류되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재산가치 하락, 교육환경 저해 등은 교도소 입지에 따른 위험으로 지각되어 결국 교도소 신축을 거부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되었다.

2. 교도소 수용성 영향요인

국가적 또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도소 입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용(acceptance)이란 특정 대상에 대해 외면적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적 가치체계의 변화를 포함하는 개념이다(Duncan, 1981; 김도연, 2011).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소 신축·이전에 대해 반대하는 지역이 있는 반면 일부 지역은 적극적인 유치 노력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교도소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수용성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교도소 시설에 대한 주민의 인식, 경제적, 사회적, 정책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교도소 시설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이다. 사회구성원들은 교도소가 국가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이성적으로는 교도소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더라도 심리적으로는 자신이 경제적·사회적으로 감당해야 할 손실과 두려움에 의해 교도소를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교도소와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와 주민의 편견이 교도소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Martin, 2000; 유병철, 2016). 많은 사람들이 모든 범죄자는 무조건 나쁜 것이고 사회와 격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Dear(1992)에 따르면 범죄인과 같은 이른바 사회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저항과 거부감은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은 범죄자가 교도소를 탈출하거나 도주할 경우 인근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중대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 이외에도 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 부정도 교도소 수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지역사회가 범죄발생에 책임이 있고 범죄자 관리에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함을 지적한다(송영삼, 2014: 1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와 주민들은 범죄자 수용시설이라는 이유로 교도소를 거부하는 이중적인 성향을 보인다.

둘째, 경제적으로 발생가능한 직·간접적 비용과 편익은 지역주민의 교도소 수용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주변 지역의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정체시키고 지역상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교도소도 예외는 아니다. 교도소 입지는 해당 지역의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정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 비용 또는 손실로 인식되며 교도소 수용을 거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교도소 입지가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한다(유병철, 2016: 89). 예를 들어 지역출신 인력 채용이나 장학금 지급, 금전적 보상,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 확충, 편의시설 제공 등은 교도소 입지로 인한 경제적 편익이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 입지로 인한 면회자와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 증가도 지역상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교도소 시설 개·보수와 각종 물품 구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이 교도소 신축을 적극 유치한 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영월교도소와 속초교도소 등의 경우 해당 지역의 법원·검찰청 소재지에 교정시설이 없었던 점도 작용하였지만, 교정공무원 및 가족, 수용인원에 따른 민원인의 증가 및 교정기관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업초기 인센티브 기대감 등도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송영삼, 2016: 114).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교도소로 인한 지역이미지 손상 등 낙인효과(stigma effect)와 시설 특성이 지역주민의 수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lynn et al., 1992; Slovic et al., 1994; 송영삼, 2016). 일반적으로 낙인효과란 "환경적 위험의 존재나 위험이 존재한다고 가정함으로써 발생되는 불확실성이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Wilson, 1994). 김철중(2012: 48)은 범죄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교도소가 근접한 공간에 낙인이 부여될 경우 주변 지역 이미지는 물론 부동산 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교도소 시설의 외형과 중압감도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송영삼(2016: 120)에 따르면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구금·격리시설의 특성상 높은 담장 감시탑 등 도주방지 시설의 외형과 철문, 철장, 칸막이 접견시설 등 내부시설 등에서 오는 중압감 등으로 일반인·주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가지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혐오감을 야기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교도소가 열등한 주거환경의 상징으로 작용하며 해당지역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낙인효과를 유발한다.

넷째, 제도적·정책적 요인 역시 비선호시설 입지 갈등 및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에 대한 정책홍보, 정책신뢰, 정부신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공개성, 민주성, 주민참여 등을 비선호시설의 입지갈등 요인으로 지적한다(김지수 외, 2016; 최승호·이필도, 2015). Gervers(1989) 역시 시설의 기술적 안정성과 더불어 절차적 공정성과 민주성의 결여, 주민의 신뢰성, 협상과정의 비공개성, 사업내용에 대한 불신과 정치적 압력 등을 수용성 요인으로 지적한 바 있다. 사회적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더라도 교도소 입지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행정절차가 준수되지 않을 경우 갈등의 개연성은 높아진다. 이는 교도소 입지 정책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정부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정책불응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특히 교도소 시설과 운영에 대한 정보에 대한 신뢰는 지역주민들의 순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Abrams et al.(1985)는 교도소 신축·이전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정보공개 등을 통한 충분한 설득과정 등을 포함한 민주적 행정절차의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위험수용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는 특정 기술 또는 시설에 대해 지각된 위험(perceived risk)과 편익(perceived benefit)을 선행요인으로 제시한다(Bronfman et al., 2009; Frewer et al., 1998; Tanaka, 2004; 김서용 외, 2006; 심준섭, 2009). 지각된 위험은 특정 기술이나 시설이 제공하는 유무형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며, 지각된 편익은 이들 시설이 제공하는 유무형 이익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심준섭, 2009: 100).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교도소 등과 같은 비선호시설 입지과정에서 당사자인 지역주민들은 입지로 인한 위험 또는 손실(비용)을 지각하게 되고, 이에 따른 보상으로서 편익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Frewer et al.(1998)은 지각된 위험이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주민 수용성은 지각된 편익의 크기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도소 신축·이전 과정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주어지는 편익이 지각된 위험을 초과한다고 지각될 경우 수용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교도소의 경우 편익은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게 주어지는 반면, 경제적·사회적 불이익과 심리적 위험 등 부정적 효과는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국한되는 특수성을 가진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교도소 입지로 인한 편익보다 비용(또는 손실)을 더 크게 지각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이는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1] 교도소 시설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교도소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교도소 시설에 대한 지각된 편익은 교도소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위험연구와 혐오시설 수용 연구에서 주목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신뢰를 들 수 있다. 신뢰란 개인들이 위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험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기관들에 대해 갖는 확신(confidence) 수준을 의미한다(Cha, 2000).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특정 위험대상을 관리·운영·감독하는 집단들에 대한 주민의 신뢰수준에 따라 위험수용이 결정됨을 강조한다(심준섭, 2009; 송해룡·김원제, 2015; 왕재선, 2013). 왕재선(2013)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일반인들의 위험인식과 수용성 자체가 사고확률과 같은 과학적 인식에 기초하기 보다는 원자력 발전소 관련 기관, 정부, 언론 등에 대한 신뢰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한다.

신뢰와 위험인식, 위험수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이한 결과가 제시되고 있다. 심준섭(2009)은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혜택과 위험을 매개로 수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하였다. 그에 따르면 원자력 기술이나 시설에 대한 신뢰는 인식된 위험 수준을 낮추고, 원자력이 혜택을 주는 안전한 기술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데 기여한다(심준섭, 2009: 100). 이와는 달리 Flynn et al.(1992)는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낙인효과를 매개로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태도에 간접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Siegrist(2000) 역시 기관에 대한 신뢰가 기술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신뢰를 인식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위험수용의 선행요인으로 간주한 상기 연구들과는 달리 신뢰의 조절효과 개연성을 지적한 연구도 있다. Bronfman et al.(2009)은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간에는 간접적 관계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는 신뢰와 지각된 편익에 의해 조절됨을 보고하였다. 김영욱·이현승(2014) 역시 위험커뮤니케이션 인식과 위험수용 간의 관계에서 원자력 기관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은 위험수용 연구에서 신뢰의 효과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교도소에 대한 신뢰는 교도소와 지역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교도소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 지역주민이 교도소에 대해 동일한 위험과 편익을 지각하더라도 교도소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수용성은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Siegrist & Cvetkovich(2000)이 지적한 바와 같이 위험시설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지 않은 일반 공중들의 경우 지식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보다는 위험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신뢰에 의존해 위험성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도소 운영관리 및 교도소가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수준은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가설의 설정이 가능하다.

[가설3-1] 교도소 신뢰는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가설3-2] 교도소 신뢰는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다.

3. 선행연구 검토

비선호시설에 관한 연구는 위험관리와 갈등관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행정학이나 정책학 분야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등 비선호시설은 물론 디지털 기술을 포함한 과학기술 등을 대상으로 연구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교도소 시설의 위험수용에 관한 구조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이러한 이유로 여기에서는 비선호시설에 대한 위험과 편익, 신뢰, 그리고 수용성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첫째, 위험인식 및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에 중점을 연구이다. 송해룡·김원제(2012)는 원전주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위험태도와 원전에 대한 지각된 이익이 위험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목진휴(2017)는 위험인식이 원자력정책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Tanaka(2004)와 김서용 외(2006), 심준섭(2009), 한동섭·김형일(2011), 이민재 외(2014) 역시 인식된 위험과 혜택이 원자력 시설과 방폐장 수용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고한 바 있다. 다만 심준섭(2009)은 인식된 위험의 영향력이 편익보다 크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민재 외(2014)는 효용인식이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수용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함으로써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송해룡·김원제(2015)의 연구에서는 위험인식이 위험수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둘째, 비선호시설 운영기관 또는 정부의 신뢰와 수용성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를 들 수 있다. 왕재선(2013)은 정서적·인지적 신뢰가 높을수록 혐오시설 수용성은 높아짐을 보고하고 있으며, 김서용 외(2006)와 심준섭(2009), 한동섭·김형일(2011), 이민재 외(2014), 송해룡·김원제(2015) 역시 신뢰가 높을수록 위험수용도는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동섭·김형일(2011)의 경우에는 총효과에 있어서 신뢰가 지각된 위험이나 편익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위험수용성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연구도 있다. 김영욱·이현승(2014)은 원자력 기관에 대한 신뢰가 위험커뮤니케이션 인식과 위험수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원자력 위험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공중의 긍정적인 평가가 원자력 기관에 대한 높은 신뢰와 상호작용할 때 위험수용에 대해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셋째, 교도소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김도연(2011), 송영삼(2014), 유병철(2016) 등이 있다. 김도연(2011)은 실증분석을 통해 지역주민의 연령이 높을수록 교도소에 대한 정책수용성이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유병철(2016)은 문헌연구를 통해 교정시설이 기피의 대상이 되는 원인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살펴보고, 교정시설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송영삼(2014; 2016) 역시 교정시설의 신축·이전 사례분석을 통해 교정시설에 대한 지역사회 및 주민의 반대 원인으로 교정시설 신축·이전의 특성을 진단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용성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교도소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교도소 신축·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도소 수용 영향요인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갈등관리 논의의 경험적 논거를 제공함은 물론 위험수용성과 관련된 연구범위의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위험수용 연구에서 중요하게 간주되는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신뢰 요인의 역할에 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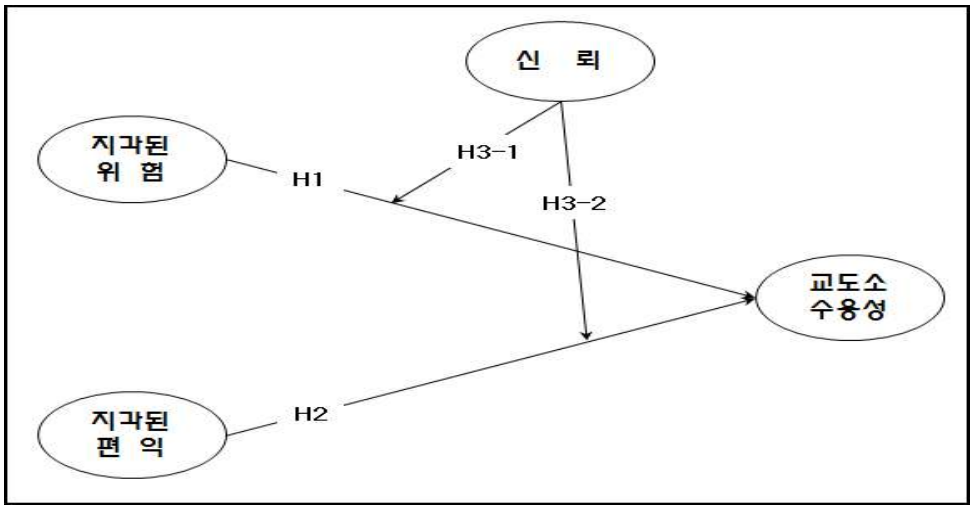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위험관리와 비선호시설 수용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내용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한다. 외생변수는 지역내에 위치한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과 편익으로 설정하고, 내생변수는 교도소 수용으로 구성한다.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 및 편익과 교도소 수용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신뢰를 설정한다.

연구모형은 지역내에 위치한 교도소에 대해 주민들이 지각한 위험 및 편익과 교도소 수용성 간의 영향관계를 포함한다. 또한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는 이들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변수로 설정되어 있다.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인식은 교도소 수용과 부정적 영향관계가 있음을 가정하고, 지각된 편익은 교도소 수용에 긍정적인 영향관계가 있음을 가정한다. 교도소에 대한 신뢰는 지각된 위험 및 편익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교도소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교도소에 대해 주민들이 지각한 위험, 편익, 교도소 수용 간의 영향관계와 이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교도소 시설이 입지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위해 강원권, 경기권, 전라권에 소재한 3개 교도소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인근 지역주민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교도소의 규모와 인접거리에 따라 지역주민의 위험 및 편익, 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교도소 규모가 유사한 3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경기권의 소망교도소, 강원권의 영월교도소, 전라권의 장흥교도소가 입지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였다.[2)]

2) 소망교도소는 2010년 12월 1일에 경기도 여주군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민영교도소로 수형자 정원은 350명 수준이다. 영월교도소는 2010년 11월 11일에 강원도 영월군에 개소한 국영교도소로 수형자 정

설문조사는 조사원의 직접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설문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협조를 얻어 시행하였다.[3] 설문지는 교도소 및 지역규모 등을 고려하여 총450명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배포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자료수집 결과 총 393부(회수율: 87.3%)가 회수되었다. 일률적 응답이나 무응답이 많아 분석에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379부(유효회수율: 84.2%)만이 실증분석에 활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와 AMOS를 활용해 분석되었다.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을 위한 내적 일관성 분석(internal consistency)과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고,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모형 및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 분석과 다중집단분석(multiple-group analysis)을 적용하였다.

3. 측정도구

지역주민이 교도소 시설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과 편익, 신뢰, 그리고 교도소 수용성에 관한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지역주민이 교도소 입지로 인해 유무형의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지각된 위험의 측정변수는 Flynn et al.(1992), Siegrist(2000), 심준섭(2009) 등의 설문문항을 참조하여 4개 문항(① 교도소 시설로 인해 주택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인식하는 정도, ② 교도소 시설이 자녀 교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③ 교도소 시설 입지로 인해 지역의 위험부담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정도, ④ 교도소 시설 운영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으로 구성하였다.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편익은 지역주민이 교도소 입지로 인해 유무형의 긍정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한다. 이현주·이영애(2011), 심준섭(2009), 송해룡·김원제(2015) 등을 참조하여 5개 문항(① 금전적 보상 정도, ② 지역주민의 채용에 대한 기대 정도, ③ 지역내 학교 등에 대한 교육장학 지원 정도, ④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어린이집, 경로당, 마을회관 등) 건립 및 지원, ⑤ 지역발전을 위해 교도소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정도)로 측정하였다.

신뢰는 지역내 교도소가 제공하는 정보 및 교도소 관리와 운영주체에 대한 믿음이나 확신 수준으로 정의한다(Cha, 2000). 심준섭(2009), 김영욱·이현승(2014), 송해룡·김원제(2015)를 참조하여 2개 문항(①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신뢰하는 정도, ② 교도소 관리 및 운영을 신뢰하는 정도)으로 측정하였다.

교도소 수용성은 지역내에 설치 및 운영중인 교도소 시설을 지역주민이 받아들이는 정도로

원은 400명에 달한다. 장흥교도소는 1975년 4월 15일에 전라남도 장흥군에 개소한 국영교도소로 수형자 정원은 250명 수준이다.

3) 설문조사 기간은 2014년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이다.

정의하고, 김서용 외(2006), 심준섭(2009), 송해룡·김원제(2012)의 연구를 참조하여 3개 문항(① 지역내에 설치 및 운영중인 교도소에 대해 긍정적 인식 정도, ② 지역내에 교도소 시설을 추가로 증설 또는 확충하는 것에 대한 동의 수준, ③ 지역내 교도소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기대 정도)으로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문항은 5점 Likert 척도(①:전혀 그렇지 않다↔⑤:매우 그렇다)를 활용하였다.

Ⅳ. 분석결과

1. 표본의 특성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50.4%(191명)와 49.6%(188명)로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둘째, 연령별 분포는 5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34.6%(131명)로 가장 많고, 40대가 24.5%(93명), 20대 이하가 23.7%(90명), 30대 이상이 17.2%(65명)로 나타났다. 둘째, 학력 수준은 고졸이하가 58.2%(213명)로 가장 많고, 대졸이 22.7%(83명), 전문대졸이 15.3%(56명)로 나타났다. 셋째, 거주년수는 20년 이상이 전체의 44.2%(165명),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6.8%(100명), 5년 이상 10년 미만 13.1%(49명), 3년 미만이 9.7%(36명), 3년 이상 5년 미만이 6.2%(23명) 등으로 분포되었다. 넷째, 소득별 분포는 100만원대가 전체의 34.7%(109명), 200만원대가 28.7%(90명), 100만원 미만이 16.6%(52명), 300만원대가 14.0%(44명), 400만원 이상이 6.1%(19명) 등으로 나타났다.

〈표 1〉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성	191	50.4	소득	100만원미만	52	16.6
	여성	188	49.6		100~199만원	109	34.7
	소계	379	100.0		200~299만원	90	28.7
연령	20대 이하	90	23.7		300~399만원	44	14.0
	30대	65	17.2		400만원이상	19	6.1
	40대	93	24.5		소계	314	100.0
	50대 이상	131	34.6	거주년수	3년 미만	36	9.7
	소계	379	100.0		3~5년	23	6.2
학력	고졸 이하	213	58.2		5~10년	49	13.1
	전문대졸	56	15.3		10~20년	100	26.8
	대졸	83	22.7		20년 이상	165	44.2
	대학원졸	14	3.8		소계	373	100.0
	소계	366	100.0				

2.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측정변수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 일관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교도소에 대해 지각된 위험에 관한 측정도구의 Cronbach's α는 .876, 지각된 편익의 α는 .843, 조절변수인 신뢰를 구성하고 있는 측정도구의 α는 .738 등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확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 수용의 경우 Cronbach's α가 .622로 다소 낮지만 분석과정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2〉 참조).

측정변수의 타당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97.390, Q=2.780, GFI=.934, AGFI=.902, RMR=.060, RMSEA=0.069, NFI=.903, TLI=.917, CFI=.935 등으로 나타나 수용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측정변수가 집중타당도를 확보하였는지 살펴보기 위해 요인적재량과 개념신뢰도(CR), 평균분산추출(AVE)을 검토하였다. 집중타당도는 요인적재량이 0.4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Barclay et al., 1995), CR은 0.7이상, AVE는 0.5이상일 때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Hair et al., 1998). 각 구성요인별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을 검토한 결과, 표준화 요인적재량은 각각 0.4이상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각 구성개념의 집중타당도가 확보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2〉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결과

잠재 변수	측정 변수	요인 적재량	표준화 요인 적재량	표준 오차	t 값	Cronbach's α
지각된 위험	r1	1.000	0.554			0.789
	r2	1.106	0.677	0.120	9.242	
	r3	1.292	0.790	0.130	9.938	
	r4	1.211	0.771	0.123	9.854	
지각된 편익	b1	1.000	0.527			0.847
	b2	1.088	0.554	0.130	8.359	
	b3	1.580	0.824	0.151	10.455	
	b4	1.753	0.889	0.163	10.771	
	b5	1.602	0.844	0.151	10.566	
신뢰	t1	1.000	0.944			0.738
	t2	0.626	0.621	0.088	7.118	
교도소 수용성	a1	1.000	0.734			0.622
	a2	1.174	0.696	0.113	10.357	
	a3	.682	0.409	0.101	6.751	

3.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가설검증에 앞서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개념별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참조). 지각된 위험의 평균은 2.677(St.D=0.722)로 지역내 교도소에 대한 주민의 위험인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각된 편익의 평균은 2.929(St.D=0.810)로 교도소로 인한 편익 인식은 보통수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교도소에 대한 신뢰의 평균은 3.226(St.D=0.658)로 보통 이상의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교도소 수용성의 평균은 3.061(St.D=0.684)로 보통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상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각한 위험은 교도소 신뢰(r=-.126) 및 수용성(r=-.374)과 부(-)적 상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하지만 지각된 위험과 지각된 편익 간의 상관계수(r=0.07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각한 편익의 경우 교도소 신뢰(r=.262) 및 수용성(r=.356)과 p〈.01수준에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을 지닌다. 종속변수인 교도소 수용성의 경우 지각된 위험과는 부(-)적 상관성(r=-.374)을 지니는 반면, 지각된 편익과는 정(+)적 상관성(r=.356)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도소에 대한 신뢰와 수용 간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 상관관계(r=.373)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절대값을 기준으로 할 때 지각된 위험은 지각된 편익보다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신뢰 역시 지각된 편익보다 높은 상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기초통계량 및 상관분석 결과

구성개념	Mean	St.D	①	②	③	④
① 지각된 위험	2.677	0.722	1.000			
② 지각된 편익	2.929	0.810	0.073	1.000		
③ 신뢰	3.226	0.658	-0.126*	0.262**	1.000	
④ 교도소 수용성	3.061	0.684	-0.374**	0.356**	0.373**	1.000

*p〈0.05, **p〈0.01

4.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수용성 간의 관계

교도소 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교도소 수용성 간의 영향관계에 관한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시행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은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하였다.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χ^2=155.203(p〈.01), GFI=.940, AGFI=.909, RMR=.066, RMSEA=0.074, NFI=.911, TLI=.920, CFI=.938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수용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에 의해 설명되는 교도소 수용성의 변

량은 45.3%로 나타났다.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과 교도소 수용성 간의 경로계수는 -.518(t=-6.602)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교도소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교도소에 대해 위험을 낮게 지각할수록 교도소 수용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교도소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이 지각한 편익과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경로계수는 -.515(t=6.511)이고, 이는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편익은 교도소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이는 교도소 시설입지에 따른 혜택과 편익을 지각할수록 수용성은 개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4〉 가설검증 결과

구분	가설내용	방향	Estimate	표준화 Estimate	S.E.	t	검증 결과
가설1	지각된 위험 → 교도소 수용성	+	-.518**	-.512	.079	-6.602	채택
가설2	지각된 편익 → 교도소 수용성	+	.515**	.484	.079	6.511	채택

**p〈0.01

5. 조절효과 검증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체 표본을 교도소에 대한 고신뢰 집단(N=216)과 저신뢰 집단(N=163)으로 구분하고 순차적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 검증은 χ^2 차이검증을 통해 분석한다. χ^2 차이검증에 의한 조절효과 분석은 3단계로 수행된다(배병렬, 2011: 401-402). 첫째,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지각된 편익과 수용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에 대해 제약을 가하지 않은 비제약모형(unconstrained model)을 추정한다. 둘째,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지각된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가 교도소 신뢰에 대해 동일하도록 제약을 가한 등가제약모형(equality constrained model)의 적합도를 평가한다. 이 모형은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인 교도소 신뢰 간에 상호작용이 없음을 의미한다. 셋째, 1단계 분석의 χ^2값과 2단계 분석의 χ^2값의 차이를 토대로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한다. χ^2차이가 유의할 경우 교도소 신뢰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이는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과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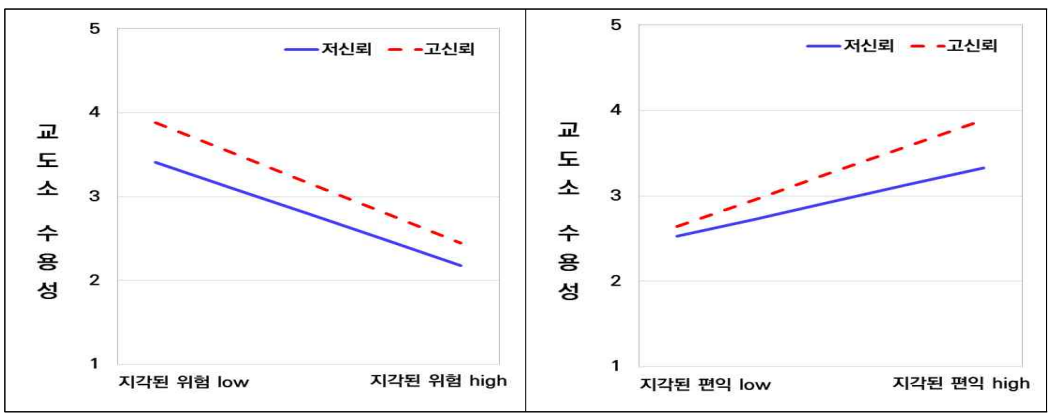
결과,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낮은 집단의 비표준화계수는 -.477로 나타났으며, 신뢰가 높은 집단의 비표준화계수는 -.511로 나타났다.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102)=210.512이며, $\triangle\chi^2$(1)=0.038로 나타났으며,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조절변수의 계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는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간의 영향관계에서 교도소 신뢰의 상호작용이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위험과 수용성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1〉은 기각된다.

둘째, 지역주민이 지각한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도 교도소 신뢰의 유의한 조절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구조계수에 등가제약을 가한 모델의 χ^2(102)=211.855이며, $\triangle\chi^2$(1)=1.381로 나타나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지각된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 3-2〉도 기각되었다.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 그리고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신뢰의 조절효과를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표 5〉 조절효과 분석결과

가설	변수-변수	등가제약모형 χ^2	$\triangle\chi^2$	개별 표본분석 비표준화계수		개별 표본분석 표준화계수	
				低신뢰 집단	高신뢰 집단	低신뢰 집단	高신뢰 집단
가설3-1	지각된 위험 → 교도소 수용성	210.512	0.038	-.477***	-.511***	-.540	-.490
가설3-2	지각된 편익 → 교도소 수용성	211.855	1.381	.363***	.542***	.343	.536

주: 비제약모형의 χ^2=210.474(df=102)
***p〈0.01



〈그림 2〉 조절효과 분석 결과

V. 결론 및 함의

본 연구에서는 비선호시설인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과 편익이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들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 조절효과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교도소 인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통해 가설검증을 시도하였다. 가설검증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된 위험과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검증 결과,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위험은 교도소 수용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1〉은 채택되었다. 이는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지각한 위험수준이 낮을수록 교도소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원자력 발전소나 핵방폐장 등을 대상으로 지각된 위험이 수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둘째,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편익과 수용성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교도소 입지로 인해 지역주민이 지각한 편익은 교도소 수용성에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대한 지각된 편익이 교도소 수용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2〉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Tanaka(2004)와 심준섭(2009), 한동섭·김형일(2011)의 주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교도소 입지로 인한 지각된 편익이 증가할수록 교도소에 대한 수용성도 향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교도소에 대해 지역주민이 지각한 위험, 편익, 그리고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에 대한 신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교도소에 대한 신뢰수준에 따라 지각한 위험 및 편익이 교도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지각된 위험과 편익, 교도소 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교도소 신뢰의 조절효과에 관한 〈가설 3-1〉과 〈가설 3-2〉는 기각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특정 기술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던 위험수용성에 관한 논의를 교도소 시설로 확대하였다는 점은 위험수용성에 관한 연구범위와 대상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교도소를 포함한 교정시설의 수용성에 대한 논의는 향후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위험인식은 물론 지역 사회자본과 비선호시설 수용성 간의 관계와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논의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또한 위험분석 차원에서 교도소 시설이 가지는 위험특성 분석과 위험관리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요구된다. 주민들은 교도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자신의 인근 지역에 시설이 입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교도소에 대한 위험을 상대적으로 크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되며, 분석결과도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교도소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난다. 차용진(2007)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교도소에 대해 지각하는 위험은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보다는 개인의 휴리스틱스(heuristics)나 편견(bias)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Slovic(198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의 위험인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교정본부와 교도소, 언론 및 시민사회의 상호소통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도소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순기능에 대한 양방향적 홍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교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위험인식 영향요인 논의도 전개되어야 한다. 교도소 위험인식에 관한 경험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위험관리 전략이 개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직·간접적 편익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원자력 관련 시설 등의 입지과정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졌다. 금전적 보상이 다른 편익 수단보다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전적 보상에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보상학습'에 따른 역기능도 발생할 수 있다. 단순 편익보상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Benford et al., 1993; 김서용 외, 2006). 특히 금전적 보상의 경우 교도소 입지로 인한 재산가치 손실에 대한 보상수단으로는 타당할 수 있지만 심리적 거부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특성 및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 중장기적 측면에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편익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 입지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한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다중집단분석 결과는 교도소에 대한 신뢰가 높은 주민들일수록 교도소 수용성에 대한 지각된 위험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 지각된 편익의 영향력은 강화됨을 보여준다. 이는 교도소에 대한 신뢰 구축이 시설 입지 갈등은 물론 수용성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교도소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위험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나현 외(2017: 68)가 주장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는 공공시설 입지 갈등 예방과 해소에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주민참여 기반의 위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도소 운영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교도소와 지역사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교도소 운영관리에 대한 신뢰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연. (2011). 비선호시설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한국균형발전연구」, 2(1): 65-92.

김서용·조성은·김선희. (2006). 위험과 편익 사이에서: 방폐장 수용성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

한국행정연구」, 15(3): 297-330.

김영욱·이현승. (2014). 미디어 레퍼토리, 위험특성과 위험커뮤니케이션 인식이 원자력 수용에 미치는 영향: 신뢰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위기관리논집」, 10(4): 1-26.

김지수·심준섭·윤태섭. (2016). 비선호 시설 입지지역의 지역 특성 분석.「한국지방행정학보」, 13(3): 51-71.

김철중. (2012). 도시 비선호시설이 주변 지역 주택 가격에 미치는 낙인효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 7, 9, 10단지를 사례로.「부동산포커스」, 52: 48-62.

목진휴. (2017). 위험인식과 정책수용: 원자력지식수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26(2): 419-448.

배병렬. (2011).「Amos 18 구조방정식모델링」. 서울: 청람.

송영삼. (2014). 도심지 소재 교정시설의 이전사례 분석.「교정연구」, 63: 175-203.

송영삼. (2016). 교정시설의 신축·이전과 지역사회 상생방안.「교정연구」, 26(3): 105-128.

송해룡·김원제. (2015). 다차원적 접근을 통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신뢰가 위험인식 및 위험수용에 미치는 효과.「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36: 37-60.

송해룡·김원제. (2012). 원전주변 지역주민의 위험지각이 위험태도와 위험수용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238-248.

심준섭. (2009).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신뢰, 인식된 위험과 혜택, 그리고 수용성,「한국정책학회보」, 18(4): 93-122.

왕재선. (2013). 신뢰와 원자력 수용성.「한국정책학회보」, 22(3): 235-266.

유병철. (2016). 지역사회의 교정시설 기피현상과 그 극복방안에 관한 연구.「교정연구」, 26(3): 81-103.

이나현·조은영·김광구. (2017).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대응방식에 관한 연구: 화력발전소 유치갈등사례를 중심으로.「한국지방행정학보」, 14(2): 45-71.

이민재·정진섭·박기성. (2014). 원자력 발전의 위험인식, 효용인식, 투명성이 사회적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기업경영연구」, 21(4): 253-279.

이현주·이영애. (2005). 원자력 발전소와 방폐장 낙인의 심리적 모형: 신뢰와 감정, 지식을 중심으로.「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3): 831-851.

차용진. (2007). 위험인식과 위험분석의 정책적 함의: 수도권 일반주민을 중심으로.「한국정책학회보」, 16(1): 97-116.

최승호·이필도. (2015). 광역공동화장시설 입지 선정시 갈등요인 분석.「한국지방행정학보」, 12(1): 1-27.

한동섭·김형일. (2011). 위험과 커뮤니케이션: 원자력의 사회적 수용에 미치는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신뢰성, 효용인식, 위험인식을 매개로.「한국위기관리논집」, 7(2): 1-22.

Abrams, K. S., Nicholas, J. C., Opinante, B., McDermott, B., Deister, A. M., Belloit, J., Heise, A. &

H. Galdwin. (1985). The Socioeconomic Impacts of State Prison Siting on the Local Community. Joint Center for Environmental and Urban Problems, Florida International University, FL.

Barclay, D., Thompson, R. & C. Higgins. (1995). The Partial Least Squares(pls) Approach to Causal Modeling: Personal Computer Adoption and Use as An Illustration, *Technology Studies*, 2(2): 285-309.

Benford, R. D., Moore, H. A. & J. Allen. Williams Jr. (1993). In whose backyard?: concern about siting a nuclear waste facility. *Sociological Inquiry*, 63(1): 30-47.

Bronfman, N. C., Vazques, E. L., & G. Dorantes. (2009). An Empirical Study for the direct and indirect Links between Trust in Regulatory Institutions and Acceptability of Hazards. *Safety Science*, 47: 686-692.

Cha, Y. J. (2000). Risk Perception in Korea: A Comparison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Risk Research*, 3(4): 321-332.

Dear, M. (1992), Understanding and Overcoming the NIMBY Syndrome.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58(3): 288-300.

Duncan, W. J. (1981), *Organizational Behavior (2nd edition)*. NY: Houghton Mifflin Co.

Flynn, J., Burns, W., Mertz, C. K., & P. Slovic. (1992). Trust as Determinant of Opposition to a High-level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Analysis of a Structural Model. *Risk Analysis*, 12: 417-429.

Frewer, L. J., Howard, C., & Shepherd, R. (1998). Understanding Public Attitudes to Technology. *Journal of Risk Research*, 1(2): 221-235.

Gervers, J. H. (1989). The Nimby Syndrome: Is It Inevitable?, Environment 29.

Hair, J. F., R. E. Anderson, R. E. Tatham & W. C. Black. (1998). *Multivariate Data Analysis. 5th ed.* Prentice Hall International.

Martin, R. (2000), Community Perceptions About Prison Construction Why Not In My Backyard?. *The Prison Journal*, 80(3): 265-294.

Siegrist, M. (2000). The Influence of Trust and Perceptions of Risks and Benefits on the Acceptance of Gene Technology. *Risk Analysis*, 20(2): 195-203.

Siegrist, M. & G. Cvetkovich. (2000). Perception of Hazard: The Role of Social Trust and Knowledge. *Risk Analysis*, 20(5): 713-719.

Slovic, P. (1987), Perception of Risk. *Science*, 236: 280-285.

Slovic, P., Flynn, J. & R. Gregory. (1994). Stigma Happens: Social Problems in the Siting of Nuclear Waste Facilities. *Risk Analysis*, 14(5): 773-777.

Tanaka, Y. (2004). Major Psychological Factors Determining Public Acceptance of the Siting of Nuclear Faciliti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4(6): 1147-1165.

Wildavsky, Aaron. (1988). *Searching for Safety*. New Brunswick: Transaction Books.

Wilson, S. A. (1994). The Environmental Opinion: Basis for an Impaired Value Opinion. *The Appraisal Journal*, 410-423.

접수일(2018년 03월 06일)
수정일(2018년 04월 03일)
게재확정일(2018년 04월 08일)